

회장인사



존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존친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동김씨대종회는 앞으로 밝은 일의 수단이 됩니다. 2012년 총발공 헌신 800주년 행사를 비롯하여 존친공

대종회 기금 10억 모기 운동계속

각종 역사자료 발굴과 안동 재실 관리의 노후에 따른 건축, 총발공 보이 회장들의 위생사업, 존친된 장악사업 제개와 생계지원 때문에 대한지인, 대종회를 발원 개입과 존친 청산회를 대상으로 하는 존친사업 바로알기교육 등 안동김씨 위생 재고를 위한 사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나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난해 말부터 금년 6월 말까지를 기점으로 '대종회 기금 10억 모기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 이렇듯 존친 여러분께 손수 할 따름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두루 이루어지 못해 계획이었으나 제 약속만 잊고 존친 여러분께 행위를 고쳐하지 않고 존친 여러분께 존친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따지자. 보다는 단초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친 여러분께 존친을 호소하여 존친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종회 임원을 비롯하여 각 파총회와 소파총회 그리고 지역 존친회와 위원 모두

가 한마음으로 본 사업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친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많이 부딪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기금 조성 내역은 백서상 발간하여 독자에게 수취한 분은, 일일금과 이상은 개월마다 세겨 일일금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존친 여러분, 부디 존친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일
안동김씨大宗會長
金南準 올림

대종회 기금 모오기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 냅시다.

<기금 일일금제>

- 총인원: 356201-04-132759
- 국민은행: 351-0222-3309-83
-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자랑스러운 忠烈公 後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金泰均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태균(48세)교수는 총 발원 관절센터에서 金(金 泰均)관절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사이자이다.

김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과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와 연구원으로서 파견 수료 후 조교수로 근무 하였으며 미국 루이빌 인공관절센터 임상전임의과장(승관절)과 미국 Johns Hopkins 의대 정형외과 연구 장교(스프링필드, 조지타운)파견을 마

치고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관절센터 책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의료인이다. 김교수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통상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여 관절염 예방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의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그 명성이 자자하다.

김교수는 총발 관절센터장으로서 총발관절 제대공과 생리공과 총발공 25대공과로 이루어진 총발공과와 전안 핵외과공과를 졸업하였다. 존친 장공리는 제대공과 세가지이다.

<대종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서 달인에 등극한 惠蘭宗인

혜란(35세) 종인은 지난 5월 10일 KBS 방송국 우리말 겨루기에서 출연하여 우리말 달인이 되어 부상으로 3,300만원의 수상을 하였다.

혜란 종인은 물론공 20대손

으로 장공공과 도시공공과 전 회장 김재현의 4대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도시공공의 회장 김재현 제공)



총렬공 행사 연출

지난 6월 19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거행된 안동시민 체육대회에 총렬공 모소 소재지인 녹천면 체육회에서는 忠烈公 金力襄을 '행'을 연출하여 관공들의 달은 바수를 받았다. 이날 체육회는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 안동시

산하 각 동면 대한의 선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 안동김씨 종시조이신 총렬공 열아바님 행차를 연출한 녹천면은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안동시청 근무(黃)在官 제공)

翼元公派 同樞公(諱 宗淑)齋室 建立 獻誠金 募金

尊嚴하는 宗人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同樞公(宗淑)에서는 2010년 정기총회에서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던 同樞公 先祖님의 齋室建立을 決議하여 齋室建立 基金을 募金하고 있으나 後裔 여러분께 적극적인 協賛을 부탁드립니다.

1. 齋室建立 以上 獻誠金 納入者는 紀念碑에 세겨 드립니다.

1. 총금제: 351-0176-9198-83(관악농협 대민지점)

1. 안동김씨 익원공과 동주공공의

1. 연락처: 02-886-5631, 017-282-1404

安東金氏 翼元公派 同樞公宗室
同樞公宗室建立 齋室 募金
委員長 金在光



제418주기 호국대제 봉행

지난 5월 28일 보람시 성주면 성주리 호국사에서 제418주기 호국대제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호국사에는 연탄공신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대제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안동김씨는 (楊)文忠公 柳平, 忠武公 柳衡(翼元)忠公 欸 세분이 태향되었다. 이날 대제에는 익원공과 후손 4명이 참례하였다.

(翼元公 제공)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 개최 공고

안동김씨대종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지역 존친회별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2010년 10월 9일(토요일) 10:00부터
2. 장소: 남양고등학교 교정(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833-1)
3. 주최: 안동김씨대종회
4. 주관: 화성·수원대종회
(화성: 김재남 010-4588-7272)

5. 내용: 태극(92세), 40m달리기
6. 대회참가신청: 2010년 9월 20일까지 대종회로 신청
7. 참가자 준비사항: 운동복 및 체육복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수원대종회 김충선(011-237-8887) 문 문의

-안동김씨대종회-

유자정(孺子亭) 및 초려(草廬)復元 落成



▲복원 교육



▲낙성식

지난 7월 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 의성군 작곡면 사촌마을에서 전사선생이 후학들과 역문을 강론하던 유자정(孺子亭) 및 초려(草廬)의 복원(復元) 낙성(落成)고유(尙由)행사 가 봉행되었다.

행사는 고유행사(高由行事) 그리고 오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유행사는 이완재 박사를 상례(相禮)로 김복규 군수를 초헌관(初獻官)으로 하여 거행되었으며, 낙성식 행사는 경상북도지사(省知事)를 대행한 김철만 문화체육관광·김복규 의성군

수, 정재현 국회의원 등의 기강단제장, 서예 유성룡(柳成龍), 아본 김성열(金誠烈)·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靜), 유암 이현보(柳顯)·진철의 종손 등 영남의 우월한 종손들, 대종회장(金南植)을 비롯한 문충회원과 그 밖에 내빈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전사 김경재 선생은 일찍이 가학을 익히다가 대산선생의 문인이 되었다. 호문삼로(胡門三老: 金宗德, 楊振源, 李南榮)의 한

분이며 학행으로 천거되어 금부도사가 되었으며, 경서(經書)와 리학(理學)을 깊이 연구하여 퇴계학파의 영남유종(嶺南儒宗)으로 추앙 받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유람에서 불현위로 모시고 있던 전사문집, 성학정로, 성학입문, 공문일품, 석학정집, 정본, 초려문답, 풍동교재입본, 신경광학간보, 예서를 많은 저서를 남기셨다.

초려는 70여명의 대치에 40여간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사립제이며, 유자정은 전사선생이 64세(1787

년)인 해 문묘에서 수학한 제자와 영남유람에 의해 건립된 정자이다. 특히 유자정은 영남학파의 중심처(求心處)이자 유림의 본거지로 마루에서는 글을 읽고 예를 익히는 선비들이 가득하였다고 하며, 가을과 봄에는 강회(講會)를 열어 시를 읊고 화답하며 선생의 유품을 보존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 다음해인 병신년(丙申義兵: 또는 丙申匪亂) 당시 의성지역 의병문통의 중심지이자 영남의 외해라 불리던 사촌마을(마을 출신의 문신 김상홍(云山 金象鴻), 화산 김수약(火山 金壽約), 근수 김수당(鰲巖 金壽堂), 연수 김수해(鰲臺 金壽煥) 등이 의병에 참여하였고 화산 김수약은 전사선생의 현손이다.)이 의병의 목산 황산전투의 패배 이후 일본군에 전입하여 불을 질러 소실되었는데, 유자정 또한 의병소모장의 고조부

정지라는 이유로 찾아와서 불을 질러, 수원관의 정사와 동점목판은 비롯하여 보관하던 유품이 전소되고 말았다.

그후 100여년이 흘러 초려라는 사촌마을자연기념관이 들어섰고, 유자정터는 농경지로 방치된 채 있던 것을 2006년 11월 전사실종덕성회 기념사업회(회장 조진환)가 발기해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보된 5여1000㎡의 사업비로 대지1075㎡(325평)에 유자정 53.28㎡(16평) 1동, 초려 58.32㎡(17평) 2동, 대문 15.125㎡(평) 1동 등 소실된 지 114년 만에 복원하게 됐다.

앞으로 이곳은 자라나는 2세대에게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을 일깨우는 들장으로 활용하고, 사촌마을, 한탄강, 영취정, 아홉자도관, 민산기념관 등과 함께 제원, 속박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이다.

(鄭 大壽 제공)

이번에 복원된 유자정과 초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자정의 유래는 후현의 명사 서지(徐載: 그의 호가 孺子이다)를 사모하여 이름한 것으로, 현관 글씨는 퇴계 이황 종손 성유(聖祐) 진성(眞誠)이 글씨(字根必)이 썼다.



유자정의 별대(別臺)는 시경(詩經) 별대(伐檀)편의 뜻을 따라 이름하였다. '일하지 않고 밥을 먹거나 나라에 공이 없이 복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현관 글씨는 윤산(兪山) 진주(全州) 이흥재(李興宰)가 썼다.



초려는 선비들이 자기겸칭(自家謙稱)으로 쓰여진 이름이다. 원래 유자정과 별도의 건물로



유자정의 초복채(草木齋)는 초의복식(草衣服食)의 줄인 말로서 '복로 옷을 짓고 나무열매를 먹는 은사'를 뜻하며, 현관 글씨는 윤산(兪山) 진주(全州) 이흥재(李興宰)가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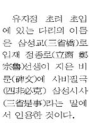
현재의 사촌마을 자연기념관 자리에 있었던 주택의 사립제이며, 여기에서 제자들과 강론한 초려문답이 있다. 현관 글씨는 성지(誠之) 안남(安南) 박찬희(朴贊熙)가 썼다.



사제현은 전사선생의 형제본(宗弟, 宗載, 宗煥, 宗望) 모두의 학덕이 널리 알려져 세인들이



사제현은 전사선생의 형제본(宗弟, 宗載, 宗煥, 宗望) 모두의 학덕이 널리 알려져 세인들이



서운관정공파, 종원헌장을 제정시행하면서



金詳浩(書)

서운관정공파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원헌장(宗員憲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헌장(憲章)이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원칙(原則)이며 실천강령(實踐綱領)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행동규범(行動規範)과 질서(秩序)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조의 정제상(正體相)을 확립하고 종원의 결속력(結束力)과 정신상(精神相)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조직은 국가와 사회공동체(社會體)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조조의 이념과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참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우리 문종은 훌륭한 선조가 많이 계시나 그 선조의 정신과 업적을 잘 간파하는 경유가 많고, 제반업무가 일상적인 통과례로 수행하는 경유가 적지 않다. 더욱이 종

원들은 종종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종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종원회를 낮게 수준으로 보는 경유가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종종의 인식을 높이고 종원의 참여의식을 고취(高起)하고, 정신적 이상(理想)을 높여 문종의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여 년간 문종(文宗)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국가관(國家觀)과 사회관(社會觀)이 해이(懈怠)돼지고 국가의 기강(紀綱)이 무너진(?) 상태(狀態)이다. 우리 종중부터라도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봉양(奉養)이념(理念)과 사상(思想)으로 굳건한 정신무장(精神武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조의 숭배(崇拜)와 정신문화(精神文化)를 계승하고, 국가와 사회관에 대한 승고한 기본적 이념을 새겨줄 것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헌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종헌을 제정하는데 있어 ▲첫째 조상과 국가를 우선 생각하고,

▲둘째 종원의 의무와 책임을, ▲셋째 종원의 역할이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종원의 기강(紀綱)은 종사에 필히 참작하여 종중(宗中)에 정한바 종조보문(宗祖寶文)과 문헌보문(文獻寶文), 문위선양(門位先養)을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① 종조상상의 양양과 현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② 선조의 선비사상 양양과 계승발전에 힘쓰고, ③ 자손의 생산과 인제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④현국의 현명한 사회공동체 구성과 역할을 확대하며, ⑤조조의 유업과 유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초(基調)로 다음과 같이 종원 헌장을 제정하여 종종의 기본이념과 지표(指標)로 삼아 국가와 문종의 건전대계를 이룩해 가도록 한다.

2010년 7월 일

(가서제공)
조현공 제2718호
西原 金詳浩(書)

종원헌장 (宗員憲章)

우리는 조상과 국가가 있어 존재하며 국가의 보호 아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우리 가족의 영구한 존립과 번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원 헌장을 제정하여 문종의 이념과 지표로 삼는다.

-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존친함과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선조의 선비사상과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계승발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선조의 유산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현임사업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전통을 사회공동체 구성과 역할충대로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인류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

2009己丑年 12月 31日
安東金氏 諸宗親正公派 宗中會

香田園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481
TEL: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02-445-6909
H.P: 011-395-5327

농장·종목전천국 전천경조학원·학원
전술517번지
TEL: 043-532-5674

성금을 보내 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5월 1일 ~ 7월 31일)

- 광성회비
50만원: (文)은종(은산) (鄭)대호(서울)
(安)병희(서울) (鄭)인희(수원) 준(서울)
計: 1,000,000원
- 한조금
5만원: (鄭)의국(의성) (安)한희(이산)
(黃)용애(대전) 주식(남원)
3만원: (黃)대복(당진) 재현(서울) (정)정복(부산)
計: 290,000원
- 봉신회비
10만원: (鄭)대식(충성)
5만원: (鄭)소희(영기)
3만원: (鄭)인희(서울) (鄭)규민(서울) 기호(서울)
(文)수원(김산) 송희(대구) 윤근(서울)
(鄭)원희(김제) 일영(영남)
計: 1,330,000원

- (安)병희(경주) 재우(이산) 선진(동두천) 영희(경주) 경민(대전) (鄭)장영(영월) 상우(인천) 장용(천안) (黃)정교(경주) 윤희(인천) 심복(충남)
2만원: (鄭)재현(대구) 경희(고산) 호영(경남) (鄭)경희(서울) 수영(대전) (鄭)수영(고산) 대성(보성) (文)한철(서울) (鄭)수영(안동) 춘식(대전) (鄭)재복(대전) (安)정수(서울) 재하(충주) 성안(대전) 태남(서울) 경준(부천) 태영(영남) (黃)진정(대구) 상봉(창원) 동수(안동) (鄭)정안(서울) 준희(김포) 종희(서울) 대식(구리) 윤희(대전) 영민(경남) 경찬(부산) 완성(영주) 정준(인천)
1만원: (鄭)재형(철원) (文)재희(서울) 부영1

회비 미납회원께서는 회보발송을 중지합니다.

회비납금: 지로 또는 국민은행: 356201-04-132759 농 할: 351-0222-3309-83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10억 모으기 성공

(2010년 5월 20일 ~ 7월 31일)

- 100만원: (鄭)사문준(의성) (鄭)재희(영천) (鄭)갑식(하남)
50만원: (鄭)수성(창희) (의성)
30만원: (鄭)소희(영기) (鄭)영희(대구) (鄭)경희
20만원: (鄭)재형(울산) 옥수(영북) (의성) (鄭)병희(서울) (鄭)주식 (동근희)
15만원: (鄭)정안(충주)
10만원: (鄭)상복(재창) 수영(대전) (安)재우(하남) (鄭)장영(충원)
(鄭)정수(대구) 지광(부산) 시준(광명) 시영(대전) (鄭)정수(대전)
재현(봉수) 호식(재복) (鄭)정수(서울)
(黃)수영(대전) 안식(남원) 영민(경남) 장우(서울) 병희(당진)
문희(경원) 대영(대전) 은희(대전) (鄭)재우(대전)
(鄭)상복

입금계좌 국민은행: 356201-04-132759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농 할: 351-0222-3309-83 납부후 물려 전한호원 02-2244-3717

계: 9,000,000(원)
누계: 65,000,000(원)